

민주 '호남 1곳 양보' 현실화 할까

새정치, 당헌·당규 살바싸움

안측, 최고위원회 폐지 요구

지배구조·공천 룰 최대 쟁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18일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치열한 살바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신당주진단 민주당 측 당헌·당규분과 위원들은 전날 새정치연합 층이 제시한 당헌·당규 초안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애초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검토 결과를 종합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의 개별 검토작업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연기했다.

이번 당헌·당규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지배구조와 '공천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위원회 폐지 요구=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회에 의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은 신당주진단 내 정무기획분과나 당헌·당규분과가 최종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구를 대신하는 등 계파정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김한길, 안철수' 두 지도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층은 대신 당내 위원회를 활성화해 위원회별로 각종 현안을 의결하면 당 대표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고위원회 폐지·통권 위임'이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로 회귀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어서 권력의 분산을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공천룰'은 어떻게 = 새정치연합 층이 제시한 공천룰은 이번 6·4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신당의 모든 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장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룰은 다른 루트를 통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신당 창당 전에 공천룰을 포함한 당헌·당규가 마련되면 이를 기준으로 양측의 공동창당준비위원회가 큰 블록의 협상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은 신당주진단 내 정무기획분과나 당헌·당규분과가 최종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룰 결정은 다소 지체될 가능성에 큰 상황이다.

양측 위원장의 공천룰 협상에서는 공론 배심원제와 당원 비중, 전략공천 대상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 층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의 호남 1곳 양보'가 현실화될지가 관심사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체육관에서 경기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하고 시·도당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과 새정치연합 소통위원장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공동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에는 대전·광주, 21일 인천, 22일 부산, 23일 서울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 뒤 26일 서울 잠실을 립피 공원 올림픽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이어 30일께 민주당과의 합당대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는 2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의결하고 합당 수임기관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창당 준비단 공동준비위원장인 민주당 임내현(앞줄 왼쪽 세번째) 의원과 새정치연합 층 이근우(『네번째』) 위원장 등 창당 실무진이 18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창당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내일 DJ센터서 창당대회

창당 준비단, 10명씩 동수 구성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임내현 국회의원과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창당준비 공동위원장인 이근우 변호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으로 맡기로 했다.

임내현 의원과 이근우 변호사는 18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양측이 실무협상을 꾸려 광주

시당 창당을 위한 준비와 협상을 진행했다"며 "새정치 구현이라는 대의를 최우선에 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양 층이 합의에 따라 창당준비단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서 각 10명씩 동수로 참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사무실은 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했고, 사무처장은 새정치연합에서 추천한 1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시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인 150명과 민주당, 새정치연합 층 각 800명씩 총 1600명의 당원을 확보해 오는 20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6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합당 이후 광주시당은 개편 대회를 통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 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티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파이낸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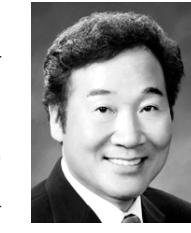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이낙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안 발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복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목포시 옥암동 KT&G 강당에서 전남사회복지사협회가 마련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가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됐지만 정작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여건은 열악하기 짙어 없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를 도내 전 시·군이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광주 인재 유출 심각... 한해 200명"

김영수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광주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면서 "광주의 인재는 광주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 해에 200명에 이르는 광주의 영재들이 전남·전북·부산·서울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각계 각종 행사에서 광주 교육의 미래를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교육철학과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계 지도자의 행보에서 비롯됐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실력 광주 교육에 헌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조호권 "일자리 창출 사회투자기금 필요"

광주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은 18일 '북구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부문과 시민의 소액 참여를 통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이 필요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동안 인건비 지원 위주의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중간시스템 구축, 공공 시장의 확대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영기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해야"

목포시장에 도전하는 홍영기 예비후보는 18일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15일 다음 아고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 청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원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선인 8년이면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윤광국, 해남군수 출마..."변화에 앞장서겠다"

윤광국 전 광주 행정부시장은 18일 도약을 녹동향에서 고흥군수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충식, 전남도의원 출마 선언

전남지사 비서관과 장흥군수 비서실장을 지낸 이충식씨가 18일 전남도의원(장흥 제1지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씨는 "15년의 행정과 비서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면서 "비판과 비난에서 벗어나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장흥에 기업과 자본을 끌어 들여 잘사는 고장으로 바꾸고 '멀티플레이어' 도의원이 되겠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도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열, 남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표심 공략

김병열 광주 남구주민자치위원장회 회장은 18일 '군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해남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활동해 오던 중 지역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 출마하게 됐다"면서 "남구 발전에 헌신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권일·오광록·박정우 기자 cki@kwangju.co.kr
/장흥·목포·해남=김용기·고구석·박희석 기자 kykim@kwangju.co.kr

公 告 利川徐氏 尚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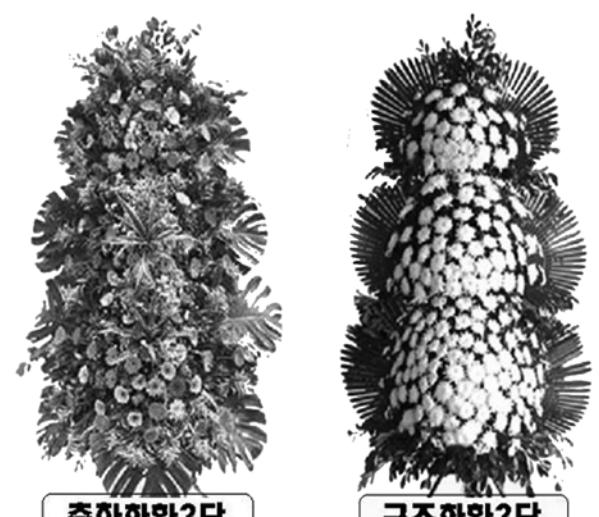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尚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NAVER 경영장에 단비플라워 출시하세요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원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